

전통복식조형미의 현대적 수용에 관한 연구

-복식의 시각적 특성에 의한 계량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 인 경*(건국대학교 디자인조형대학 의상디자인학과 조교수)
박대순·양호일(한양대학교 응용미술학과 교수)

한국의 복식전통은 역사적으로 고유양식과 외래양식 간의 이중구조(dual organization) 속에서도 고유복식의 전통을 지켜온 특색이 있다. 이러한 전통은 개화기 이후 우리의 복식생활 자체가 서양화되면서 소멸될 위기에 처했던 한국복식문화의 정체성을 복원하여 현대의 시점에서 복식전통을 재창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점을 염두에 두고 현대복식에 표현된 한국복식전통의 독자성을 강조한 특수성(particularity)과 객관적인 조형이론에 맞는 보편성(universality)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과거의 전통복식양식과 현대의 복식양식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복식전통에 있어서 통시적(通時的)인 연속의 원리(連續의 原理)를 구명하여 현대한국복식의 변화·방향의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연구의 범위는 한국 복식사의 시대구분 중 고유복식기인 삼국시대에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나타난 복식들과, 외래복식의 간섭 없이 우리 자신의 역사적 체험을 통해 새로운 복식미의 가능성을 모색했던 조선 후기의 풍속화에 나타난 복식들을 분석하여 양 시대의 전통복식양식과 전통복식조형미의 특징을 고찰한다. 이렇게 고찰된 전통복식의 특징들은 다시 개화기 이후 전통복식양식에서 벗어나 서구복식을 우리의 일상복으로 수용한 이래,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양복의 모방에서 탈피하여 우리 고유의 한국적 디자인이 표현된 현대복식의 특징들과 비교·분석해봄으로써, 현대의 시점에서 전통복식의 계승과 현대적 수용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다.

연구의 방법은 한국전통복식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사진자료의 분석을 통한 한국전통복식과 한국현대복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시각적 특성에 따른 계량적 분석으로 진행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현대복식의 한국적 디자인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불균형적인 비례와 좌·우 비대칭, 「상박하후」형으로 표현한 비대칭적인 균형감, 착용법에 의한 형태의 가변성으로 생기는 자연스러운 리듬감의 표현 등을 고구려복식과 비교·분석했을 때 한국적 디자인은 조선 후기의 조형적 원리 및 미의식의 연속선상에서 출발하고 있다.

둘째, 이와 같이 조선 후기의 복식전통을 계승한 한국적 디자인의 모색은 전통적 요소를 차용한 한국적 고유성을 강조하고, 고유복식양식을 고수하면서 한복의 이미지를 현대화시키는 개량한복형과 현대의 시점에서 복식전통을 수용하여 한국복식미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등의 세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

셋째, 고구려, 조선후기, 현대의 복식양식의 특징을 고찰한 결과 현대적 수용이 가능한 정신문화전통 중에서 조선 후기의 미의식인 「멋」의 개념과 같은 내재적 요소를 추출하여 현대적 감각에 맞게 수용·시각화한다면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한 '한국성'이라는 개념을 갖고 오늘의 새로운 전통을 창출하는 데 과거의 복식전통의 역동성은 그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한국복식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